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내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크리스 식스 목사

시편 116편

2023년 5월 7일 설교

시편 116편은 감사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대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믿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억양으로 말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작가 존 블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은 지옥의 악센트”이고 ”감사는 천국의 악센트입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의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했던 바울에게서 오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한번은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감사는 하늘의 억양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억양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평은 고통과 실망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기도가 되도록 시편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진정한 어려움을 겪는 실제 사람들과 우리를 돌보고 도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6편에서 기도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1 내가 여호와를 사랑함은 그가 들으셨음이었

자비를 구하는 내 목소리와 간청.

2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부를 것입니다.

3 사망의 올무가 나를 에워싸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4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여, 내 영혼을 구하소서!”

- 5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 6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보호하시고
내가 낮아졌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 7 오 내 영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후히 대접하셨음이니라
- 8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내 눈은 눈물에서, 내 발은 넘어짐에서,
- 9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
살아있는 땅에서.
- 10 나는 말할 때에도 믿었습니다.
“나는 크게 괴로워합니다”;
- 11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 12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갚으리요
나에 대한 그의 모든 혜택을 위해?
-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 14 여호와께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 15 주님 보시기에 귀한
그의 성도들의 죽음이다.
- 16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 여종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내 결박을 풀었습니다.
- 17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 18 내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 19 여호와의 집 뜰에서
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편의 짧은 버전을 원한다면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처음 몇 줄은 종종 전체 시의 요약입니다.

1-2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1 "내가 여호와를 사랑함은 그가 들으셨음이었

자비를 구하는 내 목소리와 간청.

2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부르겠습니다."

저자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고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할 것이다.

저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3-4절은 사활을 건 사투를 벌이는 한 사람의 말입니다.

3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스올의 고통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4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 제 영혼을 구하소서!"

하나님은 당신이 전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도 당신이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데 강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나는 크게 괴로워합니다."

나는 이 시편에 10절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9:24에서 예수께 말한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그는 궁핍한 자녀들의 가장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삽과 같은 경건한 지도자들도 의심과 씨름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시편 77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삽처럼 우리도 종종 "왜 하느님이신가요?"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해도 괜찮지만 어둠 속으로 투덜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당신의 눈물과 두려움을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10절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말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슬프고 희망이 없어서 당신과 거의 대화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삭여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보다 더 정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가 "죽음의 올무"가 그를 끌어내리려고 위협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부르십시오.

그는 괴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 8절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8”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내 발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의심과 질문이 하나님에 관한 것일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안에서만 안식과 안식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의 자녀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은 결코 당신을 무시하거나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2절을 좋아합니다.

2”그가 내게 귀를 기울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얼굴에 엄한 표정을 지은 채 하늘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울부짖을 때 그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고 몸을 굽혀 당신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는 강력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귀하의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말을 항상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윗은 시편 18:40-41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주께서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리게 하시고
and those who hated me I destroyed.

41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they cried to the Lord, but he did not answer them.”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기 전에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왕의 왕이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접근하고 싶다면 먼저 아들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치게 했고, 남을 다치게 했으며,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의를 내게 주소서.”
정교한 어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 주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듣지 않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은혜와 자비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묘사합니다.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항상 도움을 구하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오려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 "여호와와는 순진한 자를 보호하시고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때때로 나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스프레드시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계획은 그분의 서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죽으셨고, 아들과 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대신에 고문과 죽음에 직면하셨으므로 당신은 하나님께 8-9절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8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은 눈물에서, 내 발은 넘어짐에서,

9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여기 저자가 감사하는 3가지 축복이 보이시나요?

8절은 하나님께서 저자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루면서 저자의 마음과 혼과 몸을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작가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작가의 영혼은 영원히 죽음에서 건져진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은 저자의 몸을 보호하시고 그의 발을 보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땅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의 땅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저자를 변경했습니다.

이 시편의 다섯 구절은 같은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는 감사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평을 끝냈고 이제 찬양할 시간입니다.

13-14절을 보십시오.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 내가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 남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는 그것에 대해 트윗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이 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에 대한 몇 가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그룹에서 간증을 나눕니다.

라이프 그룹에 참석할 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밤 그룹에서는 매주 기도문을 책에 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형제 자매들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축복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17-18절을 보십시오.

17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18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감사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레위기 7장 12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2 만일 그들이 감사의 표시로 그것을 바치면

이 감사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은 빵을 드려야 한다.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빵,

고운 밀가루를 잘 반죽하여 기름과 섞은 두툼한 떡.

15 감사의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의 희생이 음식이었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벽돌이나 의복이나 보석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을 들은 백성들은 제물을 먹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시편 34:8은 이렇게 말합니다.

8”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알림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감사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Matthew Jacoby 목사는 시편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독립의 가장무도회를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특히 미국에서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독립하면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은 그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줍니다.

17절과 18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에 대한 선언입니다.

17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18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내 서원을 갚으리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기 전에 살펴봐야 할 마지막 구절로 이어집니다.

15절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15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단어는 값진, 값비싼,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매우 귀중하거나 귀중할 때 당신은 그것을 조심합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죠?

그것이 15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8a절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저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그가 그의 마음 속에서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에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느님께서 부드러움과 희망으로 죽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주님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움과 희망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9절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희망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에 찬 희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이 당신 자신의 순종의 기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천국에 대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기록 위에 소망을 세웠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치신 일을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늘에 시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9-10을 들어보십시오.

9”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언젠가 우리는 그 회중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해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억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억양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억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시편 7편을 소개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 40, 66, 92, 100, 118, 138.

그들에 대해 묵상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식탁에서 읽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이제 마치는 기도로 시편 116편의 몇 구절을 함께 읽읍시다.

일어서서 함께 읽어주세요.

1”내가 여호와를 사랑함은 그가 들으셨음이었

자비를 구하는 내 목소리와 간청.

2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부르리라!”

12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갚으리요

나에 대한 그의 모든 혜택을 위해?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